

I

2022대입 새로운 수능시험으로 예상되는 변화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2. 변화의 특징과 이해
3. 2022학년도 변화된 수능으로 인한 영향
4. 정리

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여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일부 체계가 개편되었다. 개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수학·직업 탐구 영역에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도 원칙적으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며, EBS 교재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었다.

Ⅱ 202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화 비교 Ⅱ

과목 (영역)	출제 범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언어와 매체(언어만 출제)	공통과목: 독서, 문학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가형: 수학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기하 빠짐) 나형: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추가)	〈문과/이과 구분 폐지〉 공통과목: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절대평가)	변화 없음
한국사	한국사 (절대평가)	변화 없음
탐 구	사회	〈일반계〉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2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과학Ⅰ·Ⅱ) 17과목 중 최대 택2
	과학	
	직업계: 직업계열 중 택2 * 직업: 10과목 (농·공·상업·수산·가사 5개 계열당 2개씩)	
제2외국어 / 한문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중 택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 베트남어Ⅰ, 한문Ⅰ 9과목 중 택1 (절대평가)

2022학년도 수능의 개편 내용 중에서 다수의 수험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 부분은 국어, 수학 영역에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 및 문·이과 구분의 폐지로 생각할 수 있다.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는 새로운 수능 점수 산출 방식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문·이과 구분의 폐지는 기존의 수학영역의 등급 및 점수 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와 문·이과 구분의 폐지를 중심으로 2022학년도 수능 변화의 특징과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2

변화의 특징과 이해



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 도입 및 문·이과 구분 폐지

2022학년도 수능의 큰 변화는 국어, 수학영역에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이다. 국어영역의 경우 공통과목(독서 + 문학)에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며,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수학 I + 수학 II)에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 미적분 / 기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과목별 비율은 국어, 수학영역 모두 공통과목(75% 내외) + 선택과목(25% 내외)의 비율로 출제된다. 또한 탐구과목도 계열 구분 없이 사회·과학 탐구영역의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결국 그동안의 수학영역의 가형(이과), 나형(문과)의 구분과 탐구영역의 계열 구분을 없애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문·이과 구분의 폐지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Ⅱ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영역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Ⅱ

	공통과목	선택과목
국어	독서 + 문학 34문항 반영비율 75% 내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11문항 반영비율 25% 내외
수학	수학 I + 수학 II 22문항 반영비율 75% 내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8문항 반영비율 25% 내외

Ⅱ 2022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Ⅱ

영역	2022학년도	
탐구	사회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택2
	과학	

나 대학별, 계열별 수능 과목 지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여 ‘공통과목 + 선택과목’을 도입하였지만, 실제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에서는 정시 및 수시모집에 있어서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과목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2022학년도 대입 대학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과목

* 대교협 발표자료 2020. 04. 30. 기준

영역	계열	지정여부	지정과목		대학
수학	자연	지정	미적분 /기하 중 택1	수도권	가천대(의예과, 약학과), 가톨릭대(약학과, 간호학과(자연), 의예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경기), 덕성여대(약학과), 동국대, 동덕여대(약학과),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지역 소재 대학	강원대(과학교육학부,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의예과), 경북대, 경상대(약학과), 계명대(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공주대(수학교육과), 단국대(천안/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자연)), 대구가톨릭대(약학부, 의예과), 대구한의대(한의, 의예과), 동국대(경주/의예과), 동아대(의예과), 동의대(한의예과), 목포대(수학교육과), 부산대, 상지대(한의예과), 서원대(수학교육과), 순천대(약학과, 수학교육과), 연세대(미래/의예과), 영남대(의예과, 약학부), 울산대(의예과), 원광대(약학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인제대(약학과, 의예과),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수의예과, 의예과, 약학과, 수학교육과), 조선대(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차의과학대(약학과), 충남대(수학과, 의예과, 수의예과, 수학교육과), 충북대(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의예과,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한국교원대(수학교육과), 한림대(의예과)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한의예과(인문)), 동의대(한의예과), 인제대(약학과)
탐구	자연	지정	과탐 2과목	수도권	가천대(의예과, 약학과), 가톨릭대(약학과, 간호학과(자연), 의예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약학과), 동국대, 동덕여대(약학과),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지역 소재 대학	강릉원주대(치의예과), 강원대, 건양대(의학), 경북대, 경상대(수의예과, 의예과), 경성대(약학과), 계명대(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고신대(의예과), 단국대(충남/약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대구가톨릭대(약학부, 의예과), 대구한의대(한의, 의예과), 동국대(경주/의예과), 동아대(의예과), 부산대, 상지대(한의예과), 순천대(약학과), 영남대(의예과, 약학부), 우석대(약학과), 울산대(의예과), 원광대(약학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의예과), 을지대(대전/의예과), 인제대(약학과, 의예과), 인천대, 전남대(약학부, 의예과, 치의예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수의예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전북대, 제주대(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수의예과, 의예과, 약학과), 조선대(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차의과학대(바이오통계학과, 약학과, 의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한국기술교대, 한림대(의예과)
			과탐 II 과목 필수		서울대(한 과목 이상 II 과목(I 과는 다른 과목) 선택)

다 점수 산출 방식의 이해

국어, 수학영역에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으로 실제 수능 성적표에 반영되는 점수 산출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Ⅱ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비교 Ⅱ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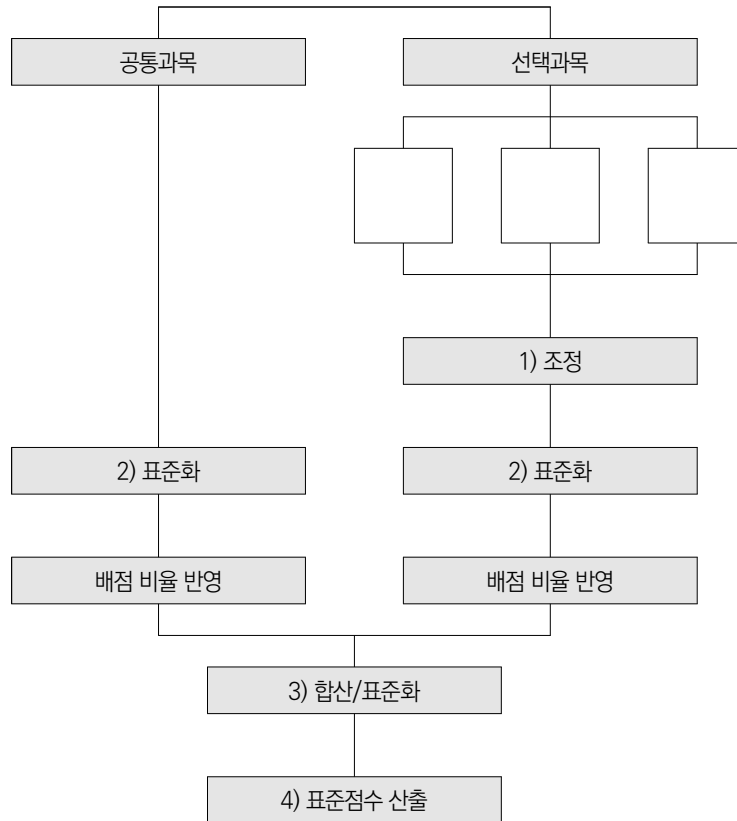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연도)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제2외국어/한문
			나형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일본어 I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연도)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I	독일어 I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존 수능 성적표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국어,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가 포함된 성적표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택과목 집단 안에서만 표준점수를 구하거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로 각각의 표준점수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의 조정된 점수와 공통과목 점수를 다음에서 밝히고 있는 산출 공식을 이용하여 단일 표준점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즉, 동일한 선택과목을 선택한 그룹의 공통과목의 성적을 고려하여 선택과목 점수의 조정을 거쳐 공통과목과 합산하여 단일 표준점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선택과목의 서로 다른 난이도와 선택집단에 따른 점수 산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선택과목의 점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 산출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 이해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공통과목 +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 방식이다.

공통과목 + 선택과목 점수 산출 방식



국어, 수학영역 점수 산출 과정은 먼저 1) 선택과목 원점수를 조정을 거쳐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로 변환시킨 후 2) 공통과목 점수와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를 각각 표준화한다. 3) 그 다음 표준화된 각각의 점수에 배점 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 뒤 4) 다시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표준화된 점수로 변환하여 최종 표준점수가 산출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의 과정인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산출되는 방식과 이것이 갖는 의미이다. 선택과목 원점수 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공식

$$X'_{2ij} = \frac{X_{2ij} - \overline{X_{2j}}}{S_{X_{2j}}} \times S_{X_{1j}} + \overline{X_{1j}}$$

- X'_{2ij} : j 선택과목 집단 i 수험생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X_{2ij} : j 선택과목 집단 i 수험생의 선택과목 원점수
- $\overline{X_{2j}}$: j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평균
- $S_{X_{2j}}$: j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S_{X_{1j}}$: j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편차
- $\overline{X_{1j}}$: j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

이 공식을 쉽게 풀어 내면 다음과 같다.

$$\text{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frac{\text{① 선택과목 원점수} - \text{② 선택과목 평균}}{\text{③ 선택과목 표준편차}} \times \text{④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표준편차} + \text{⑤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

식을 통해 ①, ④, ⑤가 높고 ②, ③이 낮을수록 선택과목의 조정 원점수는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를 활용하여 최종 표준점수가 산출되는 과정을 하나의 임의의 선택과목 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공통과목 + 선택과목 점수 산출 방식의 과정 Ⅱ

〈A 선택과목 집단의 성적〉			〈학생의 성적〉		〈응시자 전체 집단의 성적〉	
구분		점수	A를 선택한 학생		공통 과목	
공통과목	평균	54.41	공통과목 원점수	60	평균	40.92
	표준편차	12.93				
선택과목	평균	14.92	선택과목 원점수	15	표준편차	14.91
	표준편차	4.60				

〈최종 표준점수 산출 과정〉			
과정		산출 점수	비고
1)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frac{15 - 14.92}{4.60} \times 12.93 + 54.41 \approx 54.63$	•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산출식
2)	공통과목 점수 표준화	$\frac{60 - 40.92}{14.91} \approx 1.28$	• Z점수로 변환 $Z\text{점수} = \frac{\text{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 전체 집단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통과목 평균과 표준편차와 동일함.
	선택과목 점수 표준화	$\frac{54.63 - 40.92}{14.91} \approx 0.92$	
3)	비율적용 합산	$1.28 \times 0.74 + 0.92 \times 0.26 \approx 1.19$	• 공통과목74% • 선택과목26%
4)	최종표준점수	$1.19 \times 20 + 100 \approx 124$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지금까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에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최종 표준점수가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실제 시험에서 선택과목 집단별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분포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어느 특정 선택과목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단언하긴 힘들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어 단순히 생각해보았을 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집단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집단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과목 집단별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과목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높을지는 어떤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시험을 보았는지에 따라, 즉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라 탐구영역 점수 산출방식과의 차이점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로 많은 수험생들은 탐구영역처럼 특정 선택과목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표준점수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과목 결정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 수학영역 점수 산출 방식은 탐구영역 점수 표준화 방식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기존 탐구영역의 점수의 표준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탐구과목 점수 표준화 방식 〉

$$\text{탐구과목 점수 표준화} = \frac{\text{선택한 탐구과목 원점수} - \text{선택한 탐구과목 평균}}{\text{선택한 탐구과목 표준편차}}$$

국어, 수학영역 선택과목 점수 산출 방식과 탐구영역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통과목의 존재이다. 탐구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 과목을 선택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만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서로 다른 문제와 서로 다른 집단의 점수 결과로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원점수가 동일하더라도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표준점수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과목별 평균이 결정되고 이것이 반영된 것이라면 표준점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운 과목에서 1점을 맞은 학생이 쉬운 과목에서 1점을 맞은 학생보다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시집단의 학업역량의 차이로 평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학업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1점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의 1점이 더 높게 평가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수험생의 학업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소위 표준점수 대박을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로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여 탐구영역 과목간의 점수 차이를 보정한다.

탐구영역 점수 산출 방식에서 이런 문제는 과목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시집단의 학업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국어, 수학영역 선택과목 점수 산출 방식에는 공통과목의 존재로 이런 문제가 제한적이지만 보완 될 수 있다. 선택과목 집단별 공통과목 평균을 활용하여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기에 선택과목 집단별로의 학업역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특정 선택과목 집단의 선택과목 평균이 낮더라도 그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을 다른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과 비교를 하면, 그것이 과목의 난이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집단의 학업역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이를 점수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수험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최선의 점수를 획득한다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용한 점수 보정을 통해 유·불리를 최소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마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점수 산출의 예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으로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와 최종 표준점수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가상의 A, B 선택과목 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Ⅱ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이 적용된 예 Ⅱ

선택과목	학생	공통과목 원점수	선택과목 원점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원점수 합	최종 표준점수
A 선택	A1	74	26	71.586	100	140
	A2	63	26	71.586	89	131
	A3	71	18	49.517	89	132
	A4	74	15	41.241	89	132
B 선택	B1	74	26	69.143	100	140
	B2	63	26	69.143	89	131
	B3	71	18	44.381	89	130
	B4	74	15	35.095	89	130

* 공통과목(74점) / 선택과목(26점)으로 가정

구분		A 선택과목	B 선택과목
공통과목	평균	44	32
	표준편차	16	19.5
선택과목	평균	16	14
	표준편차	5.8	6.3
전체집단 공통과목	평균	37	
	표준편차	18	

위 A, B 선택과목 집단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점수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집단이다. A 선택과목 집단(이하 A 선택)은 공통과목 평균과 선택과목 평균이 B 선택과목 집단(이하 B 선택)보다 높고, 공통과목 표준편차와 선택과목 표준편차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는 A 선택의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B 선택보다 높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A1, B1 비교

과정	A1	B1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frac{26-16}{5.8} \times 16 + 44 \approx 71.586$	$\frac{26-14}{6.3} \times 19.5 + 32 \approx 69.143$
공통과목 점수 표준화	$\frac{74-37}{18} \approx 2.056$	$\frac{74-37}{18} \approx 2.056$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표준화	$\frac{71.586-37}{18} \approx 1.921$	$\frac{69.143-37}{18} \approx 1.786$
비율 적용	$2.056 \times 0.74 + 1.921 \times 0.26 \approx 2.021$	$2.056 \times 0.74 + 1.786 \times 0.26 \approx 1.985$
최종 표준점수	$2.021 \times 20 + 100 = 140.42$	$1.985 \times 20 + 100 = 139.7$
반올림 적용 최종 표준점수	140	140

먼저 ‘A1’과 ‘B1’을 비교하면 선택과목만 다를 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각각 74점, 26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의 차이로 최종 표준점수는 ‘A1’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온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 최종 표준점수는 140점으로 같아지지만 이런 소수점 차이 때문에 반올림을 적용한 최종 표준점수에서 1~2점의 차이가 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A3’과 ‘B3’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A3, B3 비교

과정	A3	B3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frac{18-16}{5.8} \times 16 + 44 \approx 49.517$	$\frac{18-14}{6.3} \times 19.5 + 32 \approx 44.381$
공통과목 점수 표준화	$\frac{71-37}{18} \approx 1.889$	$\frac{71-37}{18} \approx 1.889$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표준화	$\frac{49.517-37}{18} \approx 0.695$	$\frac{44.381-37}{18} \approx 0.410$
비율 적용	$1.889 \times 0.74 + 0.695 \times 0.26 \approx 1.579$	$1.889 \times 0.74 + 0.410 \times 0.26 \approx 1.504$
최종 표준점수	$1.579 \times 20 + 100 = 131.58$	$1.504 \times 20 + 100 = 130.08$
반올림 적용 최종 표준점수	132	130

‘A3’과 ‘B3’도 선택과목만 다를 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각각 71점과 18점으로 동일하다. ①의 상황과 비교하여 선택과목의 점수가 26점에서 18점으로 낮아졌는데 이로 인해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의 차이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최종 표준점수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에서도 더 차이가 나게 되어 2점이라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이다.

③ A2, A3, A4 비교

과정	A2	A3	A4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frac{26-16}{5.8} \times 16 + 44$ ≈ 71.586	$\frac{18-16}{5.8} \times 16 + 44$ ≈ 49.517	$\frac{15-16}{5.8} \times 16 + 44$ ≈ 41.241
공통과목 점수 표준화	$\frac{63-37}{18} \approx 1.444$	$\frac{71-37}{18} \approx 1.889$	$\frac{74-37}{18} \approx 2.056$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표준화	$\frac{71.586-37}{18} \approx 1.921$	$\frac{49.517-37}{18} \approx 0.695$	$\frac{41.241-37}{18} \approx 0.236$
비율 적용	$1.444 \times 0.74 + 1.921 \times 0.26$ $= 1.568$	$1.889 \times 0.74 + 0.695 \times 0.26$ $= 1.579$	$2.056 \times 0.74 + 0.236 \times 0.26$ $= 1.582$
최종 표준점수	$1.568 \times 20 + 100$ $= 131.36$	$1.579 \times 20 + 100$ $= 131.58$	$1.582 \times 20 + 100$ $= 131.64$
반올림 적용 최종 표준점수	131	132	132

‘A2’, ‘A3’, ‘A4’는 공통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원점수는 다르지만 합은 89점으로 같은 상황이다. 즉, 89점이라는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공통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원점수의 차이로 인해 최종 표준점수에도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의 설정에 따르면 공통과목 원점수는 ‘A4’가 74점으로 가장 높고, 선택과목 원점수는 ‘A2’가 26점으로 가장 높다. 최종 표준점수 결과를 보면 ‘A2’에서 ‘A4’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수점 반올림을 통해 표준점수가 ‘A2’와 ‘A3’처럼 1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A3’와 ‘A4’처럼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통과목을 더 잘 보는 것이 최종 표준점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④ B2, B3, B4 비교

과정	B2	B3	B4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frac{26-14}{6.3} \times 19.5 + 32$ ≈ 69.143	$\frac{18-14}{6.3} \times 19.5 + 32$ ≈ 44.381	$\frac{15-14}{6.3} \times 19.5 + 32$ ≈ 35.095
공통과목 점수 표준화	$\frac{63-37}{18} \approx 1.444$	$\frac{71-37}{18} \approx 1.889$	$\frac{74-37}{18} \approx 2.056$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표준화	$\frac{69.143-37}{18} \approx 1.786$	$\frac{44.381-37}{18} \approx 0.410$	$\frac{35.095-37}{18} \approx -0.106$
비율 적용	$1.444 \times 0.74 + 1.786 \times 0.26$ ≈ 1.533	$1.889 \times 0.74 + 0.410 \times 0.26$ ≈ 1.504	$2.056 \times 0.74 + (-0.106) \times 0.26$ ≈ 1.494
최종 표준점수	$1.533 \times 20 + 100$ $= 130.66$	$1.504 \times 20 + 100$ $= 130.08$	$1.494 \times 20 + 100$ $= 129.88$
반올림 적용 최종 표준점수	131	130	130

‘B2’, ‘B3’, ‘B4’는 공통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원점수는 다르지만 89점으로 같은 상황이다. 즉, ③의 ‘A2’, ‘A3’, ‘A4’의 관계와 일치하는 상황이지만 최종 표준점수는 반대 상황이 발생한다. ‘B2’의 최종 표준점수가 가장 높고, ‘B4’의 최종 표준점수가 가장 낮다. 즉, 이번 결과는 선택과목을 더 잘 보는 것이 최종 표준점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③, ④의 결과를 통해 공통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원점수가 다르지만 원점수의 합이 같은 학생들은 공통과목의 표준편차와 선택과목의 표준편차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③, ④의 결과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A 선택과 B 선택을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설정하였지만 실제 결과는 이것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④의 결과보다는 ③의 결과가, 즉 공통과목을 더 잘 보는 것이 최종 표준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이 적용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통과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선택과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과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수 산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2022학년도 변화된 수능으로 인한 영향



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영향

1) 공통과목의 중요성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으로 선택과목의 선택과 학습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공통과목이다. 국어, 수학영역 모두 공통과목에서 75% 내외의 점수를 반영하기에 공통과목에서의 성적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영역에서 독서와 문학, 수학영역에서 수학 I·II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공통과목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통해 공통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대학 선택과목 지정으로 인한 수학 선택과목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선택과목에 미적분 또는 기하를 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재수생들은 작년에 기하과목이 수능과목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3 학생들이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기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고,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가 어찌 될지 예측이 힘들기에 올해는 미적분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정하는 선택과목이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Ⅱ 주요 대학 자연계열 수학 선택과목 지정으로 인한 영향 Ⅱ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주요대학 자연계열 수학 지정과목	가형	미적분 / 기하
자연계열 진학희망 상위권 학생 선택	가형	미적분 / 기하
수학 평균점수(원점수)	가형 > 나형	
공통과목 평균점수(예상)	미적분 / 기하 선택집단 > 확률과 통계 선택집단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예상)	미적분 / 기하 선택집단 > 확률과 통계 선택집단	
최종 표준점수(예상)	미적분 / 기하 선택집단 ≥ 확률과 통계 선택집단	

* 공통과목 / 선택과목 표준편차 변수가 존재하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자연계열에서 수학 선택과목을 미적분 또는 기하로 지정한 대학은 기존 수능에서 수학 가형을 지정한 대학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과목의 집단은 기존의 수학 가형 집단으로 볼 수 있고,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 집단은 기존의 수학 나형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수능에서 수학 가형의 원점수 평균이 수학 나형에 비해 높았으므로,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공통과목 평균 점수를 예상해

보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확률과 통계 선택 집단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서도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보다 상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통과목 표준편차, 선택과목 표준편차의 변수가 있지만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기에 수학 영역에서 최종 표준점수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집단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수능과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이지는 않지만, 전국 11개 고교의 예비 고3 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모의평가 시험을 치러본 결과 최종 표준점수의 분포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집단의 표준점수가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전국 11개 고교 예비 고3 수학영역 모의평가 결과 Ⅱ

원점수	최종 표준점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100	127	128	127
96	124	124~125	124
95	123	124	
94	122	123~124	123
93	122	122	122
92	121	122	122

* 출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 대상학생: 전국 11개 고교 예비 3학년 471명 학생

3) 수학영역 성적 공통 산출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은 수학영역에서 성적 산출 방식이 기존 가형(자연), 나형(인문)으로 나뉘 산출하는 방식에서 구분 없이 공통으로 산출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수학 등급 구조의 변화

주요대학 자연계열에서 수학영역 선택과목 지정으로 기존 수능의 수학 가형 집단의 학생들을 2022 학년도 수능에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집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1 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가형, 나형 1~3등급 인원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Ⅱ 2021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등급 분포 Ⅱ

2021학년도 수학 가형(자연)(139,429명)			2021학년도 수학 나형(인문)(267,483명)		
등급	인원(명)	비율(%)	등급	인원(명)	비율(%)
1	7,066	5.07	1	13,894	5.19
2	12,906	9.26	2	16,962	6.34
3	12,391	8.89	3	33,246	12.43

수학 나형의 응시 인원이 많았기에 등급별 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영역 성적을 공통으로 산출하게 되면서 이 등급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학영역에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함된 수학 가형 유형의 학생들이 수학 나형 유형의 학생들과 함께 성적이 산출되므로 수학 가형 유형의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과목 집단의 표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22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위권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문·이과 구분이 폐지된 일선 고교현장 수학 I·II과목의 내신 분포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Ⅱ 서울 고교 수학 I·II 내신등급 분포 및 진학희망 계열 Ⅱ

등급	자연계열 진학희망 비율	인문계열 진학희망 비율
1~3	66%	34%

* 서울시 내의 10개 일반고 2021학년도 고3학생들 기준

서울시 내의 10개 일반고의 내신 성적 중 수학 I·II과목 1~3등급 학생들을 희망 계열별로 구분했을 때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1~3등급에서도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물론 내신과 수능의 등급 분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학 I·II라는 같은 과목에 대한 자연계열,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성적 분포이기에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서 실시한 예비 고3 수학영역 모의평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전국 11개 고교 예비 고3 수학영역 모의평가 결과 Ⅱ

등급	미적분 + 기하 비율	확률과 통계 비율
1~3	70%	30%

* 출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 대상학생: 전국 11개 고교 예비 3학년 471명 학생

전국 11개 고교의 예비 고3 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모의평가 시험을 치러본 결과 1~3등급 학생의 비율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2022 수능 수학영역에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과 인문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1~3등급 분포를 약 6:4 정도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Ⅱ 2022학년도 희망계열별 수학영역 등급 예상 분포 Ⅱ

등급	2022 수학영역 등급 인원(예상) (400,000명)		등급	2022 희망계열별 등급 인원(예상)	
	인원(명)	비율(%)		자연계열 희망 학생(명)	인문계열 희망 학생(명)
1	16,000	4.00	1	9,600	6,400
2	28,000	7.00	2	16,800	11,200
3	48,000	12.00	3	28,800	19,200

* 자연계열 / 인문계열 6:4 비율 적용

* 수학영역 응시인원 400,000명으로 가정

2022학년도 희망계열별 수학영역 등급 예상 분포 결과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6:4 비율로 잡았지만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수학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인해 2022 수능 수학영역에서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영향

수학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인해 상위 등급에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시 최저 기준 충족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앞서 살펴본 2022 수능 수학영역 희망계열별 예상인원 분포와 2021 수능 수학영역 등급 인원분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Ⅱ 2021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등급 분포와 2022 희망계열별 예상인원 비교 Ⅱ

등급	2021 수학 가형(명)	2022 자연계열 희망학생(명)	증감(명)	등급	2021 수학 나형(명)	2022 인문계열 희망학생(명)	증감(명)
1	7,066	9,600	+ 2,534	1	13,894	6,400	- 7,494
2	12,906	16,800	+ 3,894	2	16,962	11,200	- 5,762
3	12,391	28,800	+ 16,409	3	33,246	19,200	- 14,046

수학영역 상위권에 자연계열 희망 학생의 증가는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의 수학영역 등급 하락을 야기 하며 이는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③ 정시 인문계열 지원점수 변화 및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교차지원

수학영역의 성적 공통 산출은 상위권 수학 표준점수에 있어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체 표준점수에 영향을 주어 인문계열 대학 지원 점수의 상대적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높아진 표준점수로 인해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중 수학영역 반영비율이 높은 학과로 교차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Ⅱ 2021학년도 전체 표준점수 대비 수학 표준점수 평균과 2022 표준점수 예상 Ⅱ

2021 수학 가형(자연)		2021 수학 나형(인문)		2022 수학 공통 산출 (예상)	
표준점수	수학 표준점수 평균	표준점수	수학 표준점수 평균		
400점대	133.57	400점대	135	수학 표준점수	자연계열 > 인문계열
390점대	129.70	390점대	132	전체 표준점수	자연계열 > 인문계열
380점대	126.12	380점대	129		

* 2021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수능 실채점 성적 수학 데이터

2021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수능 실채점 성적 수학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수탐 표준점수 전체합 대비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수학 나형 학생들이 높다. 앞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에서 자연계열 희망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았고, 이는 수학 표준점수에서도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이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의 참고 점 점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자연계열 희망 학생들이 수학영역의 반영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 상경계열로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자연계열 확률과 통계 전략적 선택의 주의

수학영역 성적 공통 산출로 인해 기존의 수능에서 자연계열 희망 학생 중 수학 가형을 피해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간 상대적으로 수학 학업역량이 낮은 학생들이 수학 가형 대신 수학 나형을 선택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성적 및 등급 상승을 노려왔다.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수학 나형의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 과목을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올해부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선택과목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과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미 배운 과목일수는 있지만 잘 준비하고 있던 과목을 고3 중간에 바꾸는 모험을 쉽게 하긴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수학 공통과목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미적분이나 기하보다 확률과 통계에 점수 획득에 확실한 자신이 있는 자연계열 일부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여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이나, 자연계열에서 수학영역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대학을 전략적으로 목표를 삼을 수 있겠다.

나 기타 변화 사항의 영향

1) 탐구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선택

기존의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영역에서 최대 2개 혹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해야 했지만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회탐구/과학탐구 구분없이 최대 2개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조합으로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주요 대학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 2과목을 지정과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탐구영역 과목 선택을 주의해야 한다.

2)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량에 비례하여 점수가 산출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대학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제2외국어/한문의 탐구 대체를 축소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EBS 연계율 축소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었으며 간접연계가 확대되었다. 연계율이 70%일 때도 직접연계와 간접연계의 혼합으로 이루어졌기에 학생들의 실제 체감율은 70%보다 더 낮았으며 이로 인해 EBS 교재의 학습만으로 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EBS 교재의 기계적 문제 풀이 중심의 학습보다는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 지식의 원리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사고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정리



지금까지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보고 영향을 예측해보았다.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이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점수 산출 방식을 가상의 선택과목 집단을 설정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체제의 도입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교사 및 수험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유리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과목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체제를 분석해보았다.

‘공통과목 + 선택과목’ 체제에서 점수 산출은 공통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최종 표준점수가 산출되기에 어떠한 선택과목이 더 높은 점수로 산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 방식은 수험생들 사이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과목 성적을 활용하여 선택과목 간의 형평성 있는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기에 어느 선택과목이 더 높은 점수로 산출될 것인지 예측하여 그것을 과목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다. 결국 ‘공통과목 + 선택과목’의 새로운 체제에서 수험생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얻는다면, 공통과목을 이용한 점수 보정을 통해 유·불리를 최소화한 결과가 제공되기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필요한 과목, 학생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목, 가장 좋은 원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끝까지 학업을 완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에 다다르게 되었으며,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의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된 수능으로 인한 영향의 예측에서 주요 대학 자연계열에서 수학 선택과목의 지정과 수학영역 성적 공통산출로 인해 전통적으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구분한 집단에서 수학영역의 등급 및 점수 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및 전체 표준 점수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관점의 문·이과 구분을 상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일선 고교 현장에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여 수학에서도 성적을 공통으로 산출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이과 구분의 관점으로 인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유·불리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문·이과 구분의 생각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의 다양성과 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위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타당한 학과 및 계열의 편성, 수능 선택과목 지정 및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은 하나의 예상일뿐이다. 새로운 체제의 수능이 첫해이기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에 따른 영향도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수능 체제로 인해 혼란스러울 교사, 수험생, 학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상황과 자료들을 토대로 작으나마 각자에게 맞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올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변화된 수능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모의고사가 있을 것이며, 특히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유의미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 2022학년도 수능 변화의 실제 모습과 영향 부분을 계속 예상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